

오피니언 리더



조 우 성
우리중앙교회 장로
광주기독언론협회 대표회장

지난 6월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포고회’에서 이재명 대법장은 삼성전반도체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0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배경으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주요 골안이 됐다고 회상적인 결단을 했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박수를 보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이 소멸해 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5극복 체계’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빅 이슈는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와 AI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였다. 일부 야권 정치인 등은 반

“새 길을 여는 축복”

도제 생산을 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기업은 원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라 ‘이재명대통령이 감옥 가게 될 것’을 거론하는 등 비이성적인 질서와 비난을 퍼부었다. 국경 주도권을 잃어버린 수준 이하의 정치 세력들이 지역 이기심을 이용하여 또 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폐쇄시위를 하는 등 비상사태적인 연행을 일으키고 있다.

민약,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로서 도약의 발전을 담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국로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주역은 당연히 이재명 대법장이다. 이재명 대법장이 미래 최대 먹거리인 최첨단과학기술인 AI 관련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우위를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과 원대한 국가 도약 비전을 대기업 총수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재일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보여 준 정치력과 추진력,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지혜는 이재명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비전을 확신하게 했을 것이다.

한반도 역사의 도약이요 전환의 적시점을 포착한 이재명 대법장이 거대한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한 인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를 이들 AI 관련 메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벌꿀은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천연당이지만 과량섭취는 금물이다!

벌은 꿀을 모으고 꽃가루를 모으는 이유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벌꿀(honey)은 꿀벌이 자신들의 먹이원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자신들의 양식이다. 벌은 먹이인 꽃꿀을 찾는 과정에서 꽃의 가루받이를 하는 자연계의 놀라운 존재이다. 꿀은 꿀벌이 꽃의 수분(受粉: 가루받이)이라는 노동(?)의 대가로 꽃이 주는 보상이다. 벌꿀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당으로 축복의 신물이지만, 과유불급으로 적당히 먹어야 하고 (잠 25:16)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본래 꽃의 꿀샘에서 나와 단맛을 내는 액체의 성분은 설탕이다. 꽃에 있는 이 당분을 꿀꿀 [화밀(花蜜): 넥타(nectar)]이라 부른다. 꿀꿀 당분 성분인 설탕을 꿀벌이 먹었다가, 꿀벌 몸 안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된 점성 액체가 벌꿀이다. 그렇기에 벌꿀은 과당과 포도당이 주 성분이다. 꿀꿀 1g을 얻으려면, 꿀벌이 6,000-8,000 송이 꽃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벌꿀은 약 80% 당분과 20%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80%를 차지하는 벌꿀의 당분 성분은, 벌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과당(38%), 포도당(31%) 외에 맥아당 등 당류(10%), 설탕(1%)이고, 이들 당류들이 20% 정도의 물에 녹아있는 것이다. 벌꿀의 당도는 설탕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벌꿀을 당분의 주성분 외에 여러가지 성분들까지 종합적 영양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품’ 그리고 종합영양제라고 말한다. 당분 외에 효소들, 유기산, 무기질, 비타민과 꽃가루라 말하는 화분(花粉) 등이 미량으로 들어 있다. 그렇기에 벌꿀은 꿀꿀 종류와 신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약 70%) 그 외에 발꿀, 잡화꿀이다].

꽃에 있는 꿀꿀 성분인 설탕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꿀벌 소화액에 들어있는 효소같은 성분들이 벌꿀 속에 들어 있다. 또한

천연적인 생리활성물질이 들어있어 항염과 항균 작용제, 상처치유제 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와 관련된 효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백, 보습 등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성분에 꿀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피부패 성분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겨울철 입술이 볼 때 사용하면 바세린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벌꿀은 전통적인 민간치료제로도 사용해 왔지만 조심할 부분이 있다. 꿀을 모으는 과정에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이 포획될 수 있어서 한 살 미만의 유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보툴리누스균은 가장 강한 독성물질 중 하나지만, 독소를 정제하여 미용목적인 보톡스로 응용되기도 한다). 영아에게 치명적인 보툴리누스균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두 살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벌꿀 섭취를 권한다. 벌꿀은 부패되지 않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꿀의 고농도 당분에 의한 삼투현상이 부패를 방지하게 한다. 꿀꿀에 들어 있는 여러 항균물질들이 부패방지 역할을 하고, 또한 벌꿀 액성이 약산성을 띠고 있어 썩지 않는다. 햇빛, 공기, 열 등에서 보호되어 효소가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보관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원 재곡

- 서울대과 KAST 졸업
- KB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102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아슬아슬한 교회의 몰락

그리스도인의 대답 : 무슬림은 모스크에 가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신앙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엡 2:8)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시작과 목적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10:10)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안에 들어 있는 풍성한 삶 5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5단계 새로운 삶입니다.

1단계. 꿈을 가지는 신앙생활.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다” 예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들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2단계. 믿음으로 경주하는 신앙생활.
“그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

“그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은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용서받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숙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증진하게 부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전처럼 썩어질 것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창간27주년

문서를 통한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춘문예 심사위원
김용택시인 송수권시인 문순태소설가 이향아시인

미션21 크리스찬 신춘문예 작가회

2003 제1회	박대중장로 김승원목사 조영일 목사 최철연 목사
2004 제2회	김형미 목사 김문선 목사 서해성 목사 신방민 목사 이재명 목사
2006 제3회	김용준 목사 김영옥 목사
2007 제4회	박정보 목사 김신덕 목사 김정순 전 도사 이남웅 목사 박대중 목사
2008 제5회	박순길 목사
2009 제6회	미인희 목사 주성일 목사 구자현 목사 신계명 목사 주영희 목사
2010 제7회	박준승 목사 최애순 목사
2011 제8회	정길호 목사 박경숙 목사 정재철 목사 홍인표 목사 주미경 목사
2012 제9회	손종기 목사
2013 제10회	정선화 목사 서운근 목사 정명희 목사 김정열 목사 김우주 목사
2014 제11회	조운주 목사
2015 제12회	백현숙 목사 김영주 목사 윤만웅 목사 이향명 목사 이지환 목사
2016 제13회	이인덕 목사 이계숙 목사 이석후 목사 진은미 목사
2017 제14회	김지은 목사 오대환 목사 변하은 목사 이명선 목사
2018 제15회	조경심 목사 박선영 목사 김지연 목사 이상형 목사
2019 제16회	김남희 목사 서영식 목사 장명숙 목사 이향명 목사 이지환 목사
2020 제17회	김석호 목사 최등훈 목사 조원섭 목사 진은미 목사
2021 제18회	장현권 목사
2022 제19회	고영식 목사 설은주 목사 성웅구 목사 이은서 목사

보내시는 분의 정성까지 담습니다

다량 홍보우편물 발송
라벨, 봉투주소 출력
주소록 관리

모아디엠
www.moadm.com

대표 서안 석

광주광역시 북구 고운로 13번길 11 (용봉동) TEL : 062) 251-3024
E-mail : sas1821@hanmail.net FAX : 062) 251-3044